



내신 기출

문학 창비 (상편)

총만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내신 기출 문학 창비>>

<차례>

I 문학의 본질

- *사랑(김수영)-----1쪽 (29문제)
- *고향(현진건)-----8쪽 (45문제)

II 문학의 수용과 생산

- *사과를 먹으며(함민복)-----27쪽 (21문제)
- *봉산탈춤(작자 미상)-----35쪽 (18문제)
-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김혜순)-----47쪽 (16문제)
- *사평역(임철우)-----53쪽 (20문제)
- *예덕선생전(박지원)-----61쪽 (22문제)
-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싱고)-----72쪽 (9문제)
- *여백을 위한 잡담(박태원)-----77쪽 (12문제)

III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 *주몽 신화(작자 미상)-----82쪽 (15문제)
- *국수(백석)-----90쪽 (27문제)
- *시조 세 수(이색, 윤선도, 작자 미상)-----101쪽 (22문제)
- *이생규장전(김시습)-----109쪽 (13문제)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118쪽 (33문제)

- ▶정답-----142쪽
- ▶해설-----144쪽

(버전: 2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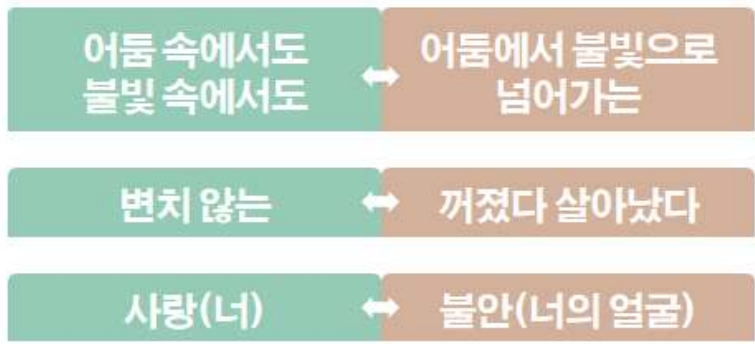
<사랑>

- ☑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주지적, 상징적
- ☑ **주제** 변화까지 끌어안은 사랑의 가치
- ☑ **특징**
 - 대립되는 시어와, 구조의 반복 및 변형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 추상적이고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의미 해석을 열어 둠.

<사랑>의 짜임

- 1연 변하지 않는 사랑
- 2연 변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
- 3연 찰나적인 깨달음

대조적 구성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번개처럼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김수영, '사랑'

효문고등학교 (서울)

1. 위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② 도치 구문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한다.
- ④ 의미의 대응 구조를 통하여 사랑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했다.
- ⑤ 공감각적 심상을 통하여 사랑의 이미지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2. <보기>는 윗글을 읽은 친구들의 대화 내용이다. 시를 바르게 감상하지 못한 사람은?

<보기>

홍민: 1연에서는 사랑의 불변성을 노래하고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혜: 그래. 1연에서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안정감을 준다면 2연에서의 불안감은 사랑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지.

시경: 그렇다면 사랑은 불변성과 더불어 불안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말이군.

혜진: 맞아. 3연의 '금이 간 너의 얼굴'에서 화자는 균열 속에서 깨닫는 사랑의 역설을 발견한 거지.

성용: 이 시가 4·19혁명 직전에 쓰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개인적 사랑과 역사적 사랑을 절묘하게 통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① 홍민 ② 지혜 ③ 시경
- ④ 혜진 ⑤ 성용

풍암고등학교 (광주)

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경미: 이 시는 상징적인 시어를 많이 사용해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것 같아.

광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너는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니?

경미: 글썽, 사랑이라고 하면 그 대상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같은 구체적인 존재가 떠오르는데, 이 시를 읽으니 '사랑'의 범위가 그보다 훨씬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광자: 나도 그렇게 느꼈어.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지만, 때로는 부정적 감정도 생겨나잖아. '사랑'은 고통과 아픔을 포함하는 것이자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경미: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럼 (㉠)도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랑'이 될 수 있겠다.

- 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 항상 긍정적인 것
- ② 분단과 독재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를 얻는 것
- ③ 격동의 사춘기를 겪으며 청소년이 어른이 되는 것
- ④ 작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창작의 고통을 겪는 것
- 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연인이 다툼과 위기를 겪는 것

풍암고등학교 (광주)

4. ㉡에 나타난 표현 기법이 모두 사용된 것은?

- ①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②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 ③ 눈은 살아 있다 /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④ 임은 물같이 까딱 앉는데 / 파도야 어찌란 말이나 / 날 어찌란 말이나
- 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쪼도 짚검불도 가락닐도 머리카락도 형갸 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짚도 타는 모닥불

서명고등학교 (충남)

5. ㉢을 통해 드러내는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지 두 어절로 쓰시오.

<고향>

-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액자 소설
- ☑ **성격** 사실적, 비판적, 현실 고발적
- ☑ **주제** 일제의 수탈로 인한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
- ☑ **특징**
 - 서술자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 '그'의 이야기가 내부 서사를 이루는 액자식 구성임.
 - 인물의 개성보다는 시대적 배경을 상징하는 전형성을 통해 주제를 드러냄.
 - 사투리, 설의적 표현, 영탄적 어조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함.

<고향>의 짜임



<고향>의 짜임

주인공의 이동

서간도	이년을 버티다가 아버지가 죽고, 사년이 못 되어 어머니마저 죽음.
신의주, 안동현	품을 팔며 일용 노동자로 삶
일본 (대판, 구주)	구주 탄광과 대판 철공장의 노동자로 일함.
K군 H리	폐허가 된 고향에서 과거 혼인 말이 있던 여자와 해후함.
서울	일자리를 찾으러 서울로 향함.

작품 정보 '나의 인식 변화'

- 인식 변화 1**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봄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 버렸다. 그 주적대는 꼴이 어쩔잖고 밉살스러웠음이다.
- 인식 변화 2**
그를 연민함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 인식 변화 3**
그의 삶에 공감함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작품 정보 '조선의 얼굴'



작품 정보 '표현상의 특징과 의도'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냄.
구성	액자식 구성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그'의 사연을 듣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며 이야기의 신뢰감을 높여줌.
결말 처리	노래 「아리랑」	당시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며 그런 현실에 대한 한탄과 비판을 드러냄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화하며 작품의 현실감을 더하는 역할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 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선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발은 감발을 하였는데 짚신을 신었고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찻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이었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 말로 곧잘 철철대이거나 중국 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도코마데 오이데 데스카(어디까지 가십니까)?”

하고 첫마디를 걸더니만 동경이 어떠니 대판이 어떠니,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끄적이 많이 먹는다는 등,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뉘엇거린다는 등, 횡설수설 지껄이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짧게 끊은 꽃꽂한 윗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딱까딱하는 고개와 함께 ‘소우데스카(그렇습니까).’란 한마디로 코대답을 할 따름이요, 잘 받아 주지 않매 그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 실랑이를 한다.

“네쌍 나올 취(어디까지 가십니까)?”

“을 씽 섬마(성함은 무엇입니까)?”

하고 덤벼 보았으나 중국인 또한 그 기름 끼인 투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띠 뿐이요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건만 그래도 무어라도 연해 웅얼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제 재주를 갈채해 달라는 웃음이었다.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 버렸다. 그 ㉢주적대는 풀이 어쭙잡고 밭살스러웠음이다. 그는 잠깐 입을 닫치고 무료한 듯이 머리를 더덕더덕 긁기도 하며 손톱을 이로 물어뜯기도 하고 멀거리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암만해도 지절대지 않고는 못 참겠던지 문득 나에게로 향하며,

[A] “어대꺼정 가는 기오?”

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인다.

“서울까지 가오.”

“그런 기오? 참 반갑구마, 나도 서울꺼정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마.”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하여 무어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기에 덤덤히 입을 닫아 버렸다.

<중략>

“어데서 오시는 길입니까?”

“흥,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

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오려면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던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굽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쳐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어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릴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밑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역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약으로 약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던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모친꺼정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툇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 준 정종 병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었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 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다섯 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별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가 보았다. 별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울화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곳에 주점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럽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별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기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퍽 변했겠지요.”

“변하고 무어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앓더마.”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던 말씀이오?”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준비하게 남았더마. 우

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지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푹푹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혈어 짓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 기오?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 기오?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 -.”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열네댓 살 적 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이십 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 번 만나 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이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꺾녀는 이십 원 몸값을 십 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육십 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몹쓸 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 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꺾녀도 자기와 같이 십 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해를 울어 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십 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 두었던 일본 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된 것이었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기오? 그 술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마. 눈은 꼭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 하더마.”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마.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

종만 한 열 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마.”

하고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치었음 이더라.

“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 하는기오?”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 살이를 듣기에 쓴 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뿔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리었다.

벗섬이나 나는 전토는 / 신작로가 되고요 -.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 감옥소로 가고요 -.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 공동묘지 가고요 -.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 유곽으로 가고요 -.

-현진건, '고향'

정원여자고등학교 (서울)

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그’의 여로 속에 ‘나’의 여로를 다루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③ 경상도 지역 방언을 활용하여 ‘그’라는 인물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비현실적 사건을 개입시켜 ‘나’와 ‘그’의 만남에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그’가 겪은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원여자고등학교 (서울)

2.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가 ‘그’의 옷차림을 보고 ‘기묘한 모임’이라고 평가한 점에서, ‘나’가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일본 사람’이 ‘그’의 이야기에 ‘코대답을 할 따름’인 점에서, ‘일본 사람’이 ‘그’를 업신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그’가 ‘나’에게 ‘신세타령의 실마리’를 푼다는 점에서, ‘그’가 ‘나’를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가 ‘정종’을 찻잔에 부어서 마시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나’가 ‘그’의 슬픔을 달래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⑤ ‘그’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짜는 듯한 목’을 높인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청원여자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의 '그 여자'와 관련된 '그'의 상황을 <보기>처럼 정리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그 여자와 어린 시절에 함께 늙. → ㉡: 그 여자가 사라짐. → ㉢: 그 여자와 재회함. → ㉣: 그 여자와 일본 우동 집에 감. ㉤: 그 여자와 헤어짐.

- ① ㉠로 보아, '그'는 그 여자와 죽마고우의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로 인해, '그'는 그 여자와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로 인해, '그'는 그 여자가 겪은 ㉣ 이후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다.
- ④ ㉣로 인해, '그'는 그 여자의 처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다.
- ⑤ ㉤이후, '그'는 그 여자와 자신의 참혹한 삶에 대해 더욱 괴로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원여자고등학교 (서울)

4. 윗글에서 '그'가 인식한 <서간도>와 <일본>의 의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간도와 달리, 일본은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② 서간도에 비해, 일본은 영양의 결핍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 ③ 서간도에 비해, 일본은 경제적 부를 이룬 공간이다.
- ④ 일본과 달리, 서간도는 육체적인 파탄의 유혹이 있는 공간이다.
- ⑤ 일본과 서간도는 정착할 수 없는 공간으로 고국을 향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청원여자고등학교 (서울)

5.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속이 메스꺼워 자꾸 토할 듯하다는
- ② ㉡: 주책없이 자꾸 잘난 체하며 떠드는
- ③ ㉢: 개인이 살림하는 집
- ④ ㉣: 매우 모질고 끈덕진
- ⑤ ㉤: 마음에 들어 만족하게

청원여자고등학교 (서울)

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고향'에서 제시된 '그'의 고향의 풍경은 일제강점기 현실의 축소판으로서,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사회적 배경은 보다 심각하게 인물들의 운명과 사건에 관여하게 됩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작품에 반영된 현실을 파악해 봅시다.

[자료] 국가 소유의 미개간지와 역둔토 약탈을 목적으로 동양척식 회사를 설립한 일제는 1912년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고 한국인의 토지를 약탈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민의 8할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고, 식민지 농업정책의 결과로 절대빈곤에 빠진 농민의 상당수는 농촌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1925년에 농촌을 떠난 인구는 15만 명 이상이였다. 이러한 이농인구는 일본, 만주, 시베리아의 노동 시장으로 흘러가거나 국내의 각 도시로 일거리를 찾아 모여들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걸인이 되거나 산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기도 하였다.

- ① '그'의 고향이 점점 쇠진하여 갔다는 점을 통해, 고향에 타지에서 화전민과 걸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군.
- ② '그'의 고향 실작인들이 '못 살겠다'라는 말을 늘 했다는 점을 통해, 농민의 상당수가 빈곤의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군.
- ③ '그'의 고향이 역둔토에 농사를 짓던 곳이라는 점을 통해, 'K군 H'는 일제강점기의 농촌의 현실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추측할 수 있겠군.
- ④ '그'의 고향 사람들이 남부여대했다는 점을 통해, 동양척식 회사의 수탈로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발생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군.
- ⑤ 세상이 뒤바뀌자 '그'의 고향 땅이 전부 동양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갔다는 점을 통해, 역둔토를 약탈하고자 하는 일제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군.

청원여자고등학교 (서울)

7. 작품 전체에서 [B]가 하는 역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농촌의 모습과 현재 농촌의 모습을 대비하여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민중들에 의해 향유된 노래로서, 당대 민중들의 삶과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정당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탄압받는 현실을 제시하여 시대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여성의 삶과 권리가 짓밟히는 모습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암시함으로써 독자의 비애감을 더욱 증폭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사과를 먹으며>

- ☑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사색적, 성찰적, 역설적
- ☑ 주제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생명 순환의 원리

- ☑ **특징**
 -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시상의 통일성을 부여함.
 - 시어 및 시행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일상적 경험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작가의 개성적 인식이 드러남.
 -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시적 대상이 확대되면서 점층적인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짐.

작품 정보

작품의 짜임

1. 문학의 순환적 경험
 2. 문란의 이해
 3. 사과를 먹으며

<사과를 먹으며>의 짜임

1~2행	사과를 먹는 행위
3~9행	사과가 열리기까지 함께한 자연물
10~12행	사과가 열리기까지의 인간의 노력
13~19행	자연 순환 과정을 통해 열린 사과
20~24행	생명의 순환 원리에 대한 역설적 인식

작품 정보 시적 상황 이 본작의 주제가 영산 1. 문헌의 이해 (1) 사과를 먹으며

먹는 것	의미
햇살	사과가 자라는 동안 함께한 자연물 ↓ 계절의 순환을 거쳐 사과가 열림.
장밋비	
소슬바람	
눈송이	
가꾼 사람의 땀방울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	사과가 열리기까지 사람들의 노력이 담김.
흙 지구의 중력 우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

작품 정보 형식적 특징 1 이 본작의 주제가 영산 1. 문헌의 이해 (1) 사과를 먹으며

- '사과 ...을/를 먹는다'라는 유사한 문장구조를 반복
- 발바닥 없이, 입술도 없이, 표정도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서민들

작품 정보 형식적 특징 2 이 본작의 주제가 영산 1. 문헌의 이해 (1) 사과를 먹으며

- 20~22행 들여 씀.
- 20~22행 '흙'이라는 단어를 시행의 첫머리에 반복

↓

의도적으로 낮설게 함, 시적 긴장감 유발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을 통해 사과가 인간에게 돌아가는 순환의 질서를 효과적으로 표현

작품 정보 형식적 특징 3 이 본작의 주제가 영산 1. 문헌의 이해 (1) 사과를 먹으며

- 문장의 반복과 확장, 변형

↓

사과의 반복, 인식의 확장, 깨달음 강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영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가좌고등학교 (경기)

1.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점층적으로 의미를 확대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 세상을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조되는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색채 대비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표면적으로 드러난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좌고등학교 (경기)

2. 위 시를 읽고 나는 학생들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맛비', '눈송이'는 '사과'가 극복한 고통으로 볼 수 있어.
- ② '사과가 나를 먹는다'를 통해서 화자와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어.
- ③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엿볼 수 있어.
- ④ '흙'으로 시작하는 시행은 의도적인 들여쓰기를 통해 시상의 반전을 드러내고 있어.
- 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를 통해 현실을 회피하고자 했던 화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

3.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화자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 ④ 시어 및 시행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화자는 대상을 통해 모든 존재는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

4. ㉠과 같은 표현의 방식이 드러나는 것은?

- ① 껍데기는 가라.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껍데기는 가라.
- ②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③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들리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 ④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 ⑤ 풀이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 더 먼저 일어난다.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

5. 위 시 내용적 의미 확장 과정에 대해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1. 위 시에 나타난 화자의 일상적 경험을 쓸 것
2. '조건1'의 경험에서 발견한 의미를 쓸 것
3. '조건2'에서 발견한 의미를 어떻게 확장 시켰는지를 쓸 것.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6. 위 시에서 사과를 먹는 경험과 관련된 시어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장맛비 ② 눈송이 ③ 벌레의 기억
④ 새소리 ⑤ 땀방울

인천초은고등학교 (인천)

7. 위 시의 창작 과정이 <보기>와 같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일상적 경험	→	㉡ 사과의 확장	→	㉢ 주제 도출

- ① ㉠: 화자가 사과를 먹는 일상적 경험에서 시상을 떠올렸음을 알 수 있다.
- ② ㉡: 자신이 먹는 사과가 열리기까지 함께 했던 자연물로 사과를 확장하고 있다.
- ③ ㉡: 자신이 먹는 사과를 키우기 위해 애쓴 사람들의 노력 등 사과를 존재하게 한 모든 것으로 사과를 확장하고 있다.
- ④ ㉢: 인간과 자연, 생명과 생명이 흙에서 흙으로 순환한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연과 인간의 주객전도(主客顛倒)의 상황을 드러내어 인간은 자연 앞에서 작은 존재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인천초은고등학교 (인천)

8. ㉠에 사용된 표현방법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서정주, '견우의 노래'
- ②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정지용, '고향'
- ③ 따뜻한 피만이 얼 수 있고 / 따뜻한 가슴만이 진정 녹을 수 있음을 / 이 겨울에 믿습니다.
-김용택, '섬진강15-겨울, 사랑의 편지'
- ④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⑤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 모가지를 드리우고 /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운동주, '십자가'

백양고등학교 (경기)

9. 위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과를 푸르게 만드는 '장맛비'와 사과를 열리는 '눈송이'는 사과가 겪어온 시련을 형상화하고 있어.
- ② 의도적인 시행 배치를 통해서 앞서 언급했던 내용과 상반된 주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 ③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은 사과가 성장하기까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아.
- ④ '벌레의 기억'이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벌레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과의 의미를 드러내며 대상을 다각도로 탐색하고 있어.
- 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사과의 모습에서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와 그에 대한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 것 같아.

II-1 봉산탈춤

<<봉산 탈춤>>

◆핵심 정리

갈래	가면극, 민속극	성격	풍자적 해학적
배경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 사회	제재	'말뚝이'의 양반 조롱
주제	양반에 대한 풍자와 비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됨. • 각 과장이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됨(옴니버스식 구성). • 언어유희, 과장과 희화화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함. 		

◆전체 구성

인물 소개	'말뚝이'와 비정상적인 외모를 지니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양반 삼 형제'가 등장함.		
재담	글자 놀이	'취발이' 잡아들이기	
비슷한 구조의 재담을 반복하면서 '말뚝이'가 '양반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함.	'양반들'이 글자 놀이를 하며 자신들의 무지와 허위의식을 스스로 폭로함.	'양반들'이 '취발이'를 잡아들이나 금전으로 타협하는 행동을 통해 부패한 사회상을 보여 줌.	
인물 퇴장	일제히 어울려 춤추다가 퇴장함.		

1. 작품에 나타난 재담의 구조

'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담의 시작으로,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함. • 주의를 환기하고 시선을 집중시킴.
↓	
'양반들'의 위엄 (인물 등장)	'양반들'과 그들의 하인인 '말뚝이'가 등장하여 그들의 상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보여 줌.
↓	
'말뚝이'의 조롱 (갈등 형성)	'말뚝이'가 '양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무능과 허위를 조롱하고 비판하여 '양반들'의 위엄이 떨어짐.
↓	
'양반들'의 호통 (갈등 고조)	'양반들'이 '말뚝이'의 말을 들은 후, '말뚝이'에게 호통하면서 그가 한 조롱을 부정함.
↓	
'말뚝이'의 변명 (갈등 하강)	'말뚝이'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조롱을 부정하면서, '양반들'의 위엄을 긍정하는 척함.
↓	
'양반들'의 안심 (갈등 해소)	'양반들'은 '말뚝이'의 변명으로 자신들의 위엄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나, 관객들은 '양반들'의 무지를 깨닫게 됨.
↓	
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담의 마무리로, 각 재담의 내용을 구분함. • 흥취와 분위기를 고조함. • '말뚝이'와 '양반들'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함.

II-1 봉산탈춤

2. '말뚝이'와 '양반들'의 재담과 주요 내용

재담 1	재담 2	재담 3	재담 4	재담 5
'양반'이라는 단어의 뜻풀이에 대한 재담	'담배'와 '흰화'에 대한 재담	'양반들'을 맞이하는 장단에 대한 재담	'말뚝이'의 양반 찾기에 대한 재담	'양반들'의 새처를 정하는 것에 대한 재담



'양반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지만, '말뚝이'는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그러나 '양반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해 더 큰 조롱거리가 됨.

3. '양반들'의 새처를 정하는 재담에 담긴 의미

'참나무 울장을 ~ 잡아 뺏습니다.'	'자좌오향에 ~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	'삼털 같은 칼 담배를 ~ 축여 뺏습니다.'
'양반들'의 새처를 마구간 모양으로 표현함으로써 '양반들'을 가축으로 비하함.	화려한 '양반들'의 새처를 묘사함으로써 '양반들'의 사치스러움을 폭로하고 부도덕함을 비판함.	'양반들'을 조롱하고 '양반들'의 권위에 대한 '말뚝이'의 반감을 표현함.

4. '양반들'의 글자 놀이에 담긴 의미

글자 놀이 1. 시조 율기	'양반들'이 부르는 시조가 '말뚝이'가 부르는 민요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 줌.
글자 놀이 2. 운자 놀이	'생원'과 '서방'의 운자 놀이는 지명을 나열하거나 의미 없는 용어를 나열해 운자만 맞춘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
글자 놀이 3. 파자 놀이	파자 놀이는 한자의 자획을 나누거나 합쳐서 맞히는 놀이지만, '생원'과 '서방'의 파자 놀이는 단순한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음.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를 폭로하여 당대의 양반 계층을 조롱하고 풍자함.

5. '취발이'를 잡아들이는 과정에 담긴 의미

'취발이'가 부정을 저지름.



'말뚝이'가 '취발이'를 잡아들임.



'말뚝이'는 '양반들'과 짜고 '취발이'에게 돈을 얻어 내려고 함.

- 죄를 저지른 '취발이'를 '양반'의 명령으로 '말뚝이'가 잡아들이지만, '말뚝이'는 '양반들'과 타협하여 '취발이'에게 뇌물을 받고 그를 풀어 주기로 함.
- 당시 부패한 사회상을 알 수 있으며, 양반의 비리와 서민에 대한 양반의 횡포를 엿볼 수 있음.

6. 등장인물의 특징

'말뚝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벅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것으로 보아 마부임을 알 수 있음. • 당시 서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임. • 겉으로는 양반에게 순종하는 듯하지만, 양반의 무능과 허위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함.
'양반들' (양반 삼 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옷, 관, 쾌자, 복건의 차림새에 부채와 장죽을 든 것으로 보아 양반임을 알 수 있음. • 맏이 '생님(생원)', 둘째 '서방님(서방)', 막내 '도련님(도령)'으로, 외형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음. • 무능하고 어리석은 양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임. • 위선과 허세를 부리는 모습과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풍자의 대상이 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退老) 재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A]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짚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塵)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각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B]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훌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奚琴),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건건드리지게 치라네. (긋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생원 :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밭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틈틈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곁곁이 다 찾아다니며도 댜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중략>

생원 :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뵈었습니다.

생원 : 이놈, 뭐야! <중략>

생원 :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 조로) ㉡“울록줄록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중략>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폰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록줄록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람이 비호(飛虎) 같은데, 댜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그리 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렸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뭣 하오? 돈이나 몇 백 냥 내라고 해야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광남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나타난 말뚝이의 말하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담을 시작하는 말을 하며 극의 전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 ②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말을 바꾸며 대상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 ③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동일한 음절과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경어체를 사용하여 겉으로는 대상을 높이면서도 이면적으로 대상에 대한 조롱을 드러내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봉산탈춤이 공연되던 당시에는 서민들이 지배층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을 풍자하여 그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었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을 웃게 하였는데, 이는 '비판적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개질량', '개다리소반' 등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양반들의 위엄을 격하시킴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한 발 가웃'이나 되는 '육모까지' 등을 맞추어 양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양반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③ '버드나무 훌뜨기', '바가지장단'과 같이 양반의 신분과 어울리는 소재를 활용하여 양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④ '노새 원님'을 '말뚝이님 내'가 탄다는 표현을 통해 양반과

말뚝이의 상하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울장'을 꽃아 '깃'을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에 대한 묘사를 통해 양반을 가족으로 비하함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조와 주제가 같은 민요를 부름으로써 양반의 허세가 자연스레 드러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② ㉡ : 학식을 자랑하는 놀이는 결국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로 전략하고 있다.
- ③ ㉢ : 기존의 신분적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통해 양반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당대에도 양반들의 횡포로 인해 고통 받는 피지배층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 :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상을 근거로 부정을 저지른 취발이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의 [A], [B]를 바탕으로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민속극이란 분장을 한 배우가 대화와 몸짓으로 사건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이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전해져 온 민간 전승의 연극이었기 때문에 민속극의 대사는 고정된 대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윗글의 [A], [B]에서 볼 수 있듯이 민속극은 서양의 연극과 다르게 _____
_____. 이와 같은 민속극의 특징을 바탕으로 공연의 상황에 따라 즉흥적 대사를 함으로써 민속극의 형식과 내용은 전승되면서도 공연을 통해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정답>>

I-1 사랑

1.⑤ 2.② 3.① 4.④ 5.사랑의 불변성 6.변치 않는 사랑이 파괴와 생성의 불안한 순간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함. 7.② 8.② 9.'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를 통해, ㉠는 화자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가르쳐 준 대상임. 10.② 11.㉡: 변치 않는 ㉢: 어둠에서 불빛으로 / 넘어가는 그 찰나에 ㉣: 불안 12.혼돈과 불안을 동반하는 사랑의 역설 13.④ 14.③ 15.③ 16.③ 17.③ 18.② 19.④ 20.① 21.⑤ 22.③ 23.④ 24.⑤ 25.① 26.불안과 균열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얼굴. 27.ㄱ: 시간의 흐름은 없음 ㄴ: 내면의 갈등 극복은 없음. 28.② 29.③

II-1 고향

1.③ 2.⑤ 3.④ 4.⑤ 5.④ 6.① 7.④ 8.㉠: 이동 수단, ㉡: 수탈 9.⑤ 10.③ 11.⑤ 12.당시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제시, 시대를 비판함으로써 주제 의식 강화. 13.④ 14.③ 15.1) 위 글의 '나'는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다 연민하고 공감함. <보기>의 '나'는 거미를 무심하게 바라보다 미안함과 배려심 있게 대함. 둘 다 대상에 대해 없던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 공통됨. 2) 위 글은 고향이, <보기>의 '거미'의 터전이 변화된 것이며 일제의 수탈로 인한 황폐해진 우리 삶을 나타냄. 16.⑤ 17.② 18.③ 19.② 20.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 감옥소로 가고요 —. 21.③ 22.⑤ 23.③ 24.⑤ 25. 고향 → (서간도) → (신의주 안동현) → (일본) → (고향) → 서울. 26.② 27.② 28.③ 29.⑤ 30.② 31.① 32.① 33.⑤ 34.주권을 상실한 조선의 현실과 비참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 35.①③ 36.④ 37.④ 38.④ 39.⑤ 40.④ 41.④ 42.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인물(민중을 대변하는 '그')에 대한 서술자(지식인을 대변하는 '나')의 태도 변화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43.⑤ 44.② 45.③

II-1 사과를 먹으며

1.① 2.② 3.⑤ 4.③ 5.사과를 먹는 행위에서 사과가 열리기까지 함께한 자연물과 인간의 노력을 발견했으며 이를 통해 자연의 순환 과정을 나타냄. 6.⑤ 7.⑤ 8.② 9.③ 10.② 11.④ 12.③ 13.③ 14.④ 15.① 16.⑤ 17.④ 18.시적 긴장감 조성, 자연 순환의 원리 강조 19.⑤ 20.③ 21.④

II-1 봉산 탈춤

1.② 2.③ 3.⑤ 4.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참여할 수 있었다. 5.⑤ 6.③ 7.① 8.⑤ 9.② 10.⑤ 11.재담과 재담을 구분한

다.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다. 12.⑤ 13.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새처 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14.(나):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를 풍자한다. (다): 양반들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풍자한다. 15.② 16.③⑤ 17.③ 18.②

II-1 납작납작-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1.② 2.⑤ 3.현실 비판 4.① 5.③ 6.1)세상에 짓눌려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표현함, 박수근의 화법을 나타냄. 2)발바닥도 없이~ / 입술도 없이~ / 표정도 없이~ 7.② 8.⑤ 9.④ 10.② 11. 납작납작해진 것처럼 인물의 삶이 짓눌린 모습 형상화됨. 12.④ 13.② 14.① 15.펼렁 16.④

II-1 사평역 / 사평역에서

1.② 2.⑤ 3.1)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2) 터진 살갓, 뒤틀린 허리 4.④ 5.① 6.② 7.③ 8.② 9.① 10.③ 11.④ 12.④ 13.⑤ 14.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이다. / (가)는 '나'의 시선으로 (나)는 역장의 시선으로 서술됨. 15.⑤ 16.③ 17.⑤ 18.③ 19.④ 20.눈꽃의 화음 / 시각적 이미지에서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됨

II-2 예덕선생전

1.④ 2.⑤ 3.④ 4.④ 5.④ 6.③ 7.② 8.⑤ 9.① 10.④ 11.⑤ 12.② 13.⑤ 14.④ 15.① 16.① 17.⑤ 18.③ 19.① 20.② 21.② 22.①

II-3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것

1.④ 2.1)의인법 2)생략 3.③ 4.② 5.찰잔의 일부가 되어 병균을 막아 주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 주는 / 갈라진 우이 사이 / 더 단단해지기 6.② 7.⑤ 8.② 9.①

II-3 여백을 위한 잡담

1.③ 2.ㄴ: 유명인의 머리 모양 묘사는 없음. ㄷ: 과장법 사용은 없음. 3.② 4.홍문연의 변태 장군인 양 내 머리터럭은 그저 제멋대로 위로 뻗쳐있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5.② 6.① 7.⑤ 8.나의 머리에 대해 한마디 석명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9.③ 10.② 11.④ 12.②